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11 주차 (롬 4:1-8)

(2017년 3월 26일 - 2017년 4월 1일)

(제5권 12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sup>T</sup>ORY** 제5 권 – 제12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3월 26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여했느냐? (주일)

## 오늘의 본문 (롬4:1)

<sup>1</sup> Τι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εὐηκεῖν Ἀβραάμ τὸν προπάτορα ἡμῶν κατὰ σάρκα;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발견한 것에 대해)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오직 믿음을 통한 의를 논증하던 바울은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한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 하는 두 명의 조상을 언급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그들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로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단군과 같은 존재다. 또한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다. 물론 다윗에 앞서 사울이 40년간 통치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초대왕은 다윗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대에 살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인물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측에서 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 약속의 이행에 그들이 행할 어떤 의무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 언약의 내용은 온통 하나님 측에서 하실 의무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 책임만 있고 인간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청구권만 있을 뿐이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더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가 한 일이라곤 고향을 떠난 것뿐이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함을 안고 있었다. 다름 아닌 아내 사라 때문이다. 사라는 애초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셈이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여성을 아내로 둔 남자를 택해서 그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얻은 건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아이를 낳은 건지 가늠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정말 끝이 곧대로 그 말을 믿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애초에 고향을 떠날 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아브라함은 자기의 대를 이어 줄 사람으로 롯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롯은 일찌기 아버지 하란을 잃고 삼촌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롯이 재산 문제로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땅으로 떠나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를 친자식처럼 여겼다. 후에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직접 전쟁에 나가 롯을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것처럼 조카 롯을 애지중지 했던 이유는 바로 후사 문제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식 문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이 여든 여섯에 드디어 아들을 보았다. 물론 그 아들은 본처 사라에게서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스마엘이 후에 낳을 아들 이삭보다 나약하고 부도덕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추인을 받아내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집스럽게 말씀하신다. 불임인 아내 사라는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더욱 절망적이다. 사라는 생리마저 끊긴 지 오래다. 생물학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를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엿듣던 사라마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아무 것도 기여한 게 없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곧잘 이런 질문을 한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게 아니냐고 말이다. 이 말은 만약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기록은 없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45</sup>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sup>16</sup>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sup>17</sup> 아브라함이 었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sup>18</sup>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sup>19</sup>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5-19).

이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커녕 비웃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질책하거나 꾸중하신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셨다. 후손을 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발견한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발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이삭의 탄생에 어떠한 기여도 한 적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쉽게 이해하는 지름길은 자기가 의롭게 된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늘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나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당신이 한 의로운 행위가 당신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당신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무엇을 자랑하느냐?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4:2)

<sup>2</sup> εἰ γὰρ Ἀβραάμ ἐξ ἔργων ἐδικαιώθη, (왜냐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일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면)  
ἔχει καύχημα, (그가 자랑을 갖고 있다)  
ὄλλ' οὐ πρὸς θεόν.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니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의 구원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도 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선언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복음)인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한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그 죄값이 대속될 정도의 큰 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죄를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로 본다는 점이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행위나 그 결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자체가 죄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다. 성경에서 ‘영생’으로 번역된 그 생명은 단지 인간의 심장과 뇌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이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죽은 사람들’, 또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또는 ‘살아 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sup>2</sup>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sup>3</sup>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sup>4</sup>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sup>5</sup>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sup>6</sup>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니<sup>7</sup>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려 하심이니라”(엡 2:1-7).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죽은 사람이 이 세상 풍습을 좇아 살고, 죽은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죽은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상 모두 진노의 자녀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죽은 자가 행한 행

실에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무슨 죄의 경중이 있겠는가?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자기 행위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평범한 범부가 아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은혜였다면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도 은혜여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실을 가정법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일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면” 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일을 가정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그의 의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다. 그도 우리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방법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었다. 창세기 12 장부터 25 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자. 그에게 무슨 본받을 만한 게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자랑거리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하기 위해서다. 복음은 자격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자격이 될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괜한 수고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4:3~5)

- <sup>3</sup> τί γὰρ ἡ γραφή λέγει;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ἐπίστευσεν δὲ Ἀβραὰμ τῷ θεῷ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 <sup>4</sup> τῷ δὲ ἐργαζομένῳ ὁ μισθὸς οὐ λογίζεται κατὰ χάριν (임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ἀλλὰ κατὰ ὄφελημα, (빛으로 여겨진다)
- <sup>5</sup> τῷ δὲ μὴ ἐργαζομένῳ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πιστεύοντι δὲ ἐπὶ τὸν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ἄσεβῃ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λογίζεται ἡ πίστις αὐτοῦ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바울이 주장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이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한다. 바울의 결론은 매우 간명하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았다고 했다. 바울의 주장을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창세기 15 장으로 돌아가 보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고 천신만고 끝에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산들을 모두 찾아 왔다. 그는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자칫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는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했다. 다행히 전투는 성공적이었고,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으로 간 이유는 재산 분쟁 때문이었다. 제발로 자기 곁을 떠나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을 겪고도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소돔에 거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모할 정도로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후손 문제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의 용맹함이나 정의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한 11 장 후반부터 25 장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다.

여하튼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과 롯은 또다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 한 편이 쓰리고 허전했을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큰 상급이라는 말인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도 변한 건 없다. 약속한 자녀는 태어날 낌새도 없고 여전히 자식 하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씁쓸하고 허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sup>2</sup>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니이다<sup>3</sup>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것이니이다”(창 15:2-3).

아브라함은 허전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왔건만 약속한 자식은 줄 생각도 없으면서 번번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항변은 이해가 간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다. 게다가 사랑하는 조카 롯은 영영 돌아올 김새도 없으니 이러다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야 할 게 뻔하다. 3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보세 요, 당신은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실하게 후손을 바라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브라함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올 자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는 뜬금없이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못별을 셀 수 있겠냐고 하신다. 그러고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창세기 15 장 6 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근거라고 주장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자기의 후손이 될 것이고 언젠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을 뿐이다. 이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있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들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대견해 하며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로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인정해 줄 거라 여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 의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 믿음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반대로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때문이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 의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4:3~5)

- <sup>3</sup> τί γὰρ ἡ γραφή λέγει;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ἐπίστευσεν δὲ Ἀβραὰμ τῷ θεῷ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 <sup>4</sup> τῷ δὲ ἐργαζομένῳ ὁ μισθὸς οὐ λογίζεται κατὰ χάριν (임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ἀλλὰ κατὰ ὄφελημα, (빛으로 여겨진다)
- <sup>5</sup> τῷ δὲ μὴ ἐργαζομένῳ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πιστεύονται δὲ ἐπὶ τὸν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ἄσεβῃ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λογίζεται ἡ πίστις αὐτοῦ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누구나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에게 반드시 일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는 그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있는 셈이다. 인간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걸맞은 대가를 지급하셔야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일종의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삶을 돌아볼 때마다 문득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된다. 얼마 전 한 여변호사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변호인이 대신 읽은 반성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1심 선고를 받고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처분히 바라보면서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 (국민일보 2017년 3월 18일자 인터넷 판에서 발췌).

이 반성문을 제출한 여지분은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다. 게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시다. 이분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자기가 놀랐다고 했다. 인간들의 삶이 그렇다. 모두가 재판정에서 법의 판결을 받을 정도는 아니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소한 실수든 큰 실수든 실수하며 살게 마련이다. 어떤 이들은 뻔히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한다. 물론 이 정도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미 때는 늦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마음 깊은 곳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게 되면 인간들은 대개가 종교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좀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더 예배에 충실해진다. 우스갯소리지만 갑자기 헌금이 늘어나면 회개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고들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의 죄를 덮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뭔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까? 아마도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하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의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었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불경건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감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며 경건하지 못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에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고백이 믿음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잘 알았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후에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는 끝내 후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진정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것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복음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인가요?

## 축복이 오기까지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4:6~8)

- <sup>6</sup> καθάπερ καὶ Δαυὶδ λέγει τὸν μακαρισμ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다윗이 사람의 축복에 대해 말한 바와 같이)  
ὃ ὁ θεὸς λογίζεται δικαιοσύνην χωρὶς ἔργων· (하나님이 일을 떠나 의로 여겨주는 사람에게 대해)
- <sup>7</sup> μακάριοι ὧν ἀφέθησαν αἱ ἀνομία· (불법이 용서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καὶ ὧν ἐπεκαλύφθησαν αἱ ἁμαρτία· (그리고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 <sup>8</sup> μακάριος ἀνὴρ οὗ οὐ μὴ λογίσῃται κύριος ἁμαρτίαν· (주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다. 먼저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한 바울은 다음 사례의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 말한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32편이다.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시편 3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다윗이 그 수치스런 사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자.

다윗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약 1000년이었으니 밋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일어났다. 당시에 왕들은 앞장 서서 전쟁에 참전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다. 늘 성실하고 백성들의 모범이었던 다윗에게 이 상황은 무척 이례적인 것이었다. 군사들을 모두 전쟁터로 보내고 홀로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왕궁 옥상 위를 거닐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바로 이 일이 다윗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다. 정욕이 동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다. 그 부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까?”(삼하11:4).

이 부하는 보고를 질문으로 대신했다. 이 말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는 뜻이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질문 안에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먼저 이 질문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 문장에는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의 뜻이 예사롭지 않다.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엘리암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빛이란 뜻이며, 밋세바는 맹세의 딸, 약속의 딸이라는 뜻이다. 각각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딸이고, 헛 사람 ‘하나님의 빛’의 아내 ‘맹세의 딸’이 아니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빛의 아내이며 하나님 백성의 딸이고 맹세의 딸인 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와 간통을 하러 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에서 풍기듯 이 여인은 다윗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어 이 밋세바와 통정을 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욕정이 앞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 개인적 욕정을 채웠을 뿐인데 뜻하지 않은 밋세바의 임신으로 일이 꼬이게 되었다. 밋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밋세바가 자기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밋세바는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다윗 또한 백성들로부터 간음한 왕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일로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으로 추앙받아 왔으니까.

이 일로 다윗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윗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밋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고자 했다. 만약 우리아가 밋세바와 동침만 한다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증거가 없어진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완전 범죄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부랴부랴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였다. 전쟁 상황 보고와 요압의 안부를 전하는 메신저로 그를 불러들여서는 우리아의 노고를 치하하는 척하며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했다. 다시 말해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해도 좋다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잔 것이다. 다윗은 속이 탔다. 그는 다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라고 채근했다. 그런데 우리아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삼하 11:11).

얼마나 충성스런 부하인가?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술김에 집으로 가도록 계획을 꾸민다.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했다. 더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자 다윗은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 그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도록 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고 그는 죄없는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한다. 그리고는 청상 과부가 된 밋세바를 자기 아내로 거두었다. 다윗이 한 짓은 아무도 몰랐다. 백성들에게 그는 여전히 칭송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실, 그의 내면에 있는 악한 계획들을 다 보고 계셨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남 모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불법이 용서되기 위해서는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만 가능하다. 죄는 발각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데다 갈수록 점점 대담해지기까지 한다. 다윗이 목욕하던 밋세바를 본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욕정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죄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는 살인을 교사하기에까지 이른다. 다윗이 한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든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남몰래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순간 그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들추어 내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 당하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자기의 죄나 실존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 제가 죄인입니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4:6~8)

- <sup>6</sup> καθάπερ καὶ Δαυὶδ λέγει τὸν μακαρισμ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다윗이 사람의 축복에 대해 말한 바와 같이)  
ὅ ὁ θεὸς λογίζεται δικαιοσύνην χωρὶς ἔργων· (하나님이 일을 떠나 의로 여겨 주는 사람에게 대해)
- <sup>7</sup> μακάριοι ὧν ἀφέθησαν αἱ ἀνομία· (불법이 용서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καὶ ὧν ἐπεκαλύφθησαν αἱ ἁμαρτία· (그리고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 <sup>8</sup> μακάριος ἀνὴρ οὗ οὐ μὴ λογίσται κύριος ἁμαρτίαν· (주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부하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만든 죄의식도 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어느 때와 같이 왕의 일을 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에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말문을 열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sup>2</sup>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sup>3</sup>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sup>4</sup>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삼하 12:1-4).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가진 단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치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다윗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sup>6</sup>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삼하 12:5-6).<sup>5</sup>

다윗은 율법에 정한대로 처분하라고 명했다. 당장 그 일을 행한 부자를 죽이고 양을 빼앗긴 그 사람에게 네 배를 보상해 주라고 했다. 다윗의 명령은 추상같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응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일 년 전 자기가 우리에게 행한 일은 까마득히 잊었다. 아마도 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은 줄로만 믿었고 그 아내를 거두어 준 다윗은 인자하고 의로운 왕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런 다윗이 나단이 한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정의를 외치며 돌을 들고 달려들던 사람들처럼 분노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난데없이 나단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윗을 일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의감에 불타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sup>8</sup>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sup>9</sup>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sup>10</sup>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하 12:7-10).

다윗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기억 깊은 곳에 가두어놓았던 그날의 죄가 모두 떠올랐다. 그 죄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순간 깨어나 다윗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몸둘 바를 몰랐다.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감춰온 죄를 지적 당한 후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다윗의 회개에는 가식이 없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필수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어느 종교처럼 기복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나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을 조장하는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의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 받은 사람은 타인들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 밖에 없다. 그 관대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난다. 당신에게는 내면에 은밀히 숨겨 둔 죄가 없는가? 혹시라도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직접 죄의 책망을 받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죄의 책망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필수 코스인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4:6~8)

- <sup>6</sup> καθάπερ καὶ Δαυὶδ λέγει τὸν μακαρισμ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다윗이 사람의 축복에 대해 말한 바와 같이)  
ὃ ὁ θεὸς λογίζεται δικαιοσύνην χωρὶς ἔργων· (하나님이 일을 떠나 의로 여겨 주는 사람에게 대해)
- <sup>7</sup> μακάριοι ὧν ἀρέθησαν αἱ ἀνομία· (불법이 용서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καὶ ὧν ἐπεκαλύφθησαν αἱ ἁμαρτία· (그리고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 <sup>8</sup> μακάριος ἀνὴρ οὗ οὐ μὴ λογίσται κύριος ἁμαρτίαν· (주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알이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문득문득 찾아 오는 죄의식은 그를 몹시도 괴롭혔다. 물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하기 전에도 다윗은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다. 밋세바를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 그는 심적 고통으로 베개가 땀으로 흠뻑 젖은 적도 많았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낱알이 고백하기 전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3</sup>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sup>4</sup>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 32:3-4).

죄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뼈를 쇠하게도 하고 사람의 진액을 모두 빼 버리기도 할 만큼 죄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다. 죄로 인한 스트레스는 멀쩡한 사람도 암에 걸리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다윗도 그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가 자신을 압박해 올 때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했을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선한 행정을 펼치고, 군사들에게 더 관대한 정책을 펼쳤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성군처럼 행세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내면에서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마저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 그 죄를 지적한 것이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즉각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밋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갑자기 아이가 시름 시름 앓기 시작했다. 수많은 의원들이 동원됐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런 것인지를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죽어 간 이유는 전적으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 죄는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만다. 하지만 그 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다.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에게 없었다. 죽어가는 어이를 보면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없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용서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스스로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았다. 속죄양을 잡아 대속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셨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32편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중략) ...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1-5).

다윗은 죄가 자신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지나는 동안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는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가리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달았다. 금식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다윗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 그와 관계를 끊지도 않으셨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죄는 아무런 대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된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 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축복 세 가지를 언급했다. 죄가 용서된 사람,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게 아니다. 만약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또한 필요치 않다.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의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비록 실수로 혹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분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혹시 마음 안에 썩기는 것이 있는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할지 몰라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죄가 문득문득 되 살아나서 잠 못 이룬 적은 없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 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 있고, 그 죄가 이미 용서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